

남도 체험로드-진도 Spot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와 울돌목.

역사와 민속 알수록 신비로운 자연...진도 속으로

진도대교 - 명랑해상케이블카 - 울돌목 일대 - 진도타워

신비의 바닷길 - 세방낙조 - 진도 해안도로 - 관매도 해변



세방낙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

섬과 물, 역사의 길목과 신비로운 자연, 바다의 여름이 맞닿은 곳 진도. 남도 끝자락에 놓인 이 섬은 여행객에게 단순한 피서지가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바닷길 축제와 다도해 섬들이 포개진 풍경, 천년 목소리가 남은 산방과 누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견 진도개의 수도까지. 진도에는 세월을 건너 온 이야기와 생생한 체험, 남도의 여유와 자부심이 함께 숨는다.

◇진도의 풍경. 주연은 바다= 진도대교를 건너는 순간, 남해의 풍경은 바다인지 땅인지 경계가 헛갈릴 만큼 하늘과 섬과 바다가 층층이 포개진다. 길이 484m, 폭 11.7m 국도 18호선에 놓인 이 다리는 국내 유일의 쌍둥이 사장교로, 해마다 260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진도의 첫 관문이다. 서쪽 해협 아래로는 명랑해전이 펼쳐졌던 울돌목의 세찬 물살이 흐르고 저녁이면 붉은 낙조가 바다 위를 감싼다.

다리를 건너 언덕을 오르면 망금산 정상에 우뚝 선 진도타워가 기다린다. 7층 전망대에 오르면 바람과 함께 울돌목, 세방낙조,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 멀리 두륜산과 월출산까지 남해의 지형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전망대 내부에는 진도와 남도의 풍경·생태, 명랑대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관, 진도 고유의 예술혼이 담긴 소리와 서화 자료실, 그리고 여행의 쉼터가 되는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까지 여행자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공간이 채워져 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 맞서 조선을 지켜낸 역사의 현장인 명랑대첩 전승지 울돌목 해협 위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순간도 느낄 수 있다. 명랑해상케이블카는 도 군내면 녹지관광지 진도타워 앞에 위치한 스테이션과 해남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스테이션까지 1km 구간을 운행한다.

진도바다를 제대로 느끼는 곳은 관매도 해변이다. 관매도 해변은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한 섬마을 피서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조도 6군도 중 가장 대표적인 섬으로, 2km 넘게 이어진 곱고 넓은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가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는다.

◇대한민국 제일의 낙조, 세방낙조= 진도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세방낙조 전망대는 한반도 최남단 대표 낙조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다도해 섬과 바다, 하늘이 한 장 유화처럼 어우러지고, 특히 해 질 무렵 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붉은 태양이 압권이다.

세방낙조 전망대 1-3층에는 전망데크와 벤치, 간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바닷길
용솟음 치는 바다 소용돌이
눈이 닿는 해변 모두가 신비롭다

명랑해전·삼별초 역사가 숨쉬는
남도의 자부심과 여유로움 만끽

이매점이 마련돼 있어 바람을 쐬며 천천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 인근 급지산(해발 223m) 전망대는 조금 이른 시간에 오르면 한눈에 다도해와 황금빛 하늘, 섬 그림자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조망을 경험할 수 있다.

◇삼별초 역사탐방로= 진도의 삼별초 역사탐방로는 섬과 바다, 산과 마을이 살아 숨 쉬는 길이다. 삼별초 역사의 시작이자 진도 탐방의 첫머리는 벽파진이다. 이곳은 삼별초가 강화도를 떠나 진도 땅에 상륙한 관문이자 조선시대엔 수군영과 불수망, 우곡지사와 문인들이 오가며 시를 남겼던 남도의 거점이다.

벽파진이 언덕 위에 남아있고, 그 옆으로 명랑대첩 기념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가 고요히 서 있다. 벽파정 언덕 끝에는 명랑대첩 승리의 기쁨과 삼별초군이 남긴 저항의 흔적이 겹쳐 서 있다. 이충무공 전첩비와 옛 항구·숙구진 해풍·작은 어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그 바다길을 건넌 군사와 사진, 포구의 북적임이 느껴진다.

벽파진에서 용장성(사적 제126호)으로 향하는 산길은 삼별초가 실제로 진도에 정착해 또 다른 고려 정부를 세웠던 역사 현장과 직접 이어진다.

용장성은 해안산능선을 따라 13km에 달하는 대규모 산성으로, 삼별초가 진도에 세운 항몽 거점이자 일시적인 새로운 수도였다. 성 안에는 지금도 일부 석성 흔적과 행궁터, 용장사 부지 등 당시 궁궐의 자리와 건물 배치가 남아 있다. 2000년대 이후 곳곳에서 유물 발굴과 조사가 계속돼 명문기와와 철마, 청자 조각, 군사시설 등 왕성했던 항몽정권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용장성 홍보관에서는 항몽기 명문 기와, 철제 마, 청자, 각종 군사용 유물과 항몽 충혼탑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용장성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군내면 산자



울돌목 회오리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울돌목스카이워크.

락에 위치한 승화루 왕운의 묘(전남기념물 제126호)가 기다리고 있다. '왕무덤재'라 불리는 이곳엔 2m 남짓 봉분과 돌호석, 석인상이 항몽 투쟁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왕운은 몽골에 끌려가 저항했던 삼별초의 마지막 고려왕으로, 1271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봉분과 20여m 떨어진 아래엔 그가 탔던 말의 무덤도 있다.

임회면 남동리에 위치한 남도진성(사적 제127호)은 고려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이자, 조선 수군 만호진의 해군기지였다. 평지형에 가까운 이 곳은 고려-조선 초기 수군의 주둔지, 왜구 방어기지로 각광받은 곳으로 객사·군기고 터 등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군사사적, 행정적 유산이 공존한다.

남도진성 남문 주변을 흐르는 세운천(과거 해자역할)에는 문화재자료 제215호인 쌍운교와 단운교 두 무지개 돌다리가 이어져 있어 산책 코스·사진 명소로도 인기가. 객사, 동헌, 내아, 군기고 등 옛 건물터가 복원·정비됐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체험존·AR 보물찾기 등 체험콘텐츠도 운영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는 궁녀동병(유형유산 4호)에서 삼별초 항몽의 마지막 페이지를 듣는다. 패전 직후, 피란 중이던 궁녀들과 급장들이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투신한 이 깊은 동병에는 비 내리는 날이면 주변에서 여인네들의 슬픈 울음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있다. 묵직하고 슬픈 역사가 남아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남도 바다만큼 깨끗한 여성들의 의지까지 느껴진다.

/서민경·이종수 기자 min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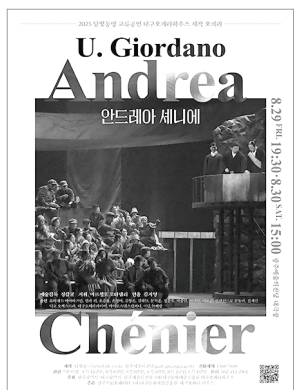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5 달빛동맹교류공연
〈안드레아 세니에〉

일시 : 2025-08-29(금) 19:30
2025-08-30(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